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자치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 첨단산업 육성·기업 투자 가속화

### 탄소융복합 등 총 88만평 세계·규제특례 등 혜택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돼 첨단산업 육성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 우용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별 앵커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지정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 공포, 기업과 시·도간 투자협약 체결 등의 행사로 진행됐으며, 전북은 효성첨단소재가 전북 투자기업을 대표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 기회발전특구는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 4개 시별 특화산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중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 특구 협약체결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인 동물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88만평이 지정된다.

산업별로 보면 익산과 정읍은 동물용의약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 분야 21만평, 김제는 모빌리티 분야 37만평, 전주는 탄소 융복합 분야 30만평이다.

동물용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8만평)와 국가식품클러스터(7만평), 정읍 첨단과화일반산업단지(6만평) 등 3개소로,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주)제이비케이랩과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보유한 (주)레드진 등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제는 이미 특장차 관련 산업이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특구로 지정되는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27만평), 백구 일반산업단지(10만 평)와 이미 조성된 특장차 관련 산단을 연계하여 모빌리티 전문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며,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주)대승, 특장차 생산 기업인 HR E&I, 창립모아츠(주)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20만 평)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10만평)은 효성첨단소재를 앵커 기업으로 탄소 후방 기업들을 유치하여 탄소 융복합 산업 거점을 목표로 특구로 지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35,000

여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 기업은 11개 사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로 예상되는 전북도 생산유발 효과는 1.6조원, 고용효과 1만2,000명에 달한다.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지원 확대, 규제 특례 등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의회 의장단 선출

### 후반기 의장에 문승우 후보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 표 차이로 당선

1부위원장에 이명연·2부위원장에 김희수 후보

상임위원장에 최형열·임승식·김대중 후보 등

20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의장 문승우 후보



1부위원장 이명연 후보



2부위원장 김희수 후보

거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문승우 후보가 단 한 표 차이로 당선되는 기적을 연출했다.

의장 1차 투표에서 황영석 후보는 15표, 문승우 후보가 14표, 박용근 후보가 8표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2차 투표가 이루어졌다.

2차에서는 역전이 이루어져 문승우 후보가 19표, 황영석 후보가 18표를 얻어 단 한 표 차이로 문승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민주당 내 부위원장으로 1부위원장은 이명연 후보가, 2부위원장은 김희수 후보가 당선됐다.

상임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최형열 후보,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 임승식 후보, 경제산업건설

위원회에는 김대중 후보,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는 박정규 후보, 교육위원회에는 진형석 후보, 운영위원회에는 윤수후 후보가 당선됐다.

도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37명이고, 나머지 국민의 힘 소속 1명, 진보당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1명, 인 관계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지는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등 선거보다 이번 민주당 내 경선이 분 선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의원이 24일 2부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2부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전주시, '강한 경제' 구현 한걸음

전주시가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강한 경제' 전주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포항시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지정 행사에서 전주시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3·1단계) 등 약 96만㎡(29만 평) 규모의 부지를 탄

6231명 취업·8389억원 생산·3781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예상

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지·업종 등을 설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는 탄소소

재 국가산업단지(66만1,157㎡, 약 20만 평)와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3·1단계)(26만4,462㎡, 약 8만평), 덕진구 일반공업 개발부지 5곳(3만3,057㎡, 약 1만평)을 포함한 총 96만㎡(약 29만평) 규모이다. 또, 앵커기업인 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피치케이블과 루미컴 등 협력기업 15개사(전주형 일자리 9개 기업 포함)가 위치해 있다.

특히, 특구 지정 구역이 기업들이 집적화된 산단 외에 전주형 일자리 참여 기업이 위치한 일반공업 개발부지가

지 확대된 것은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담보상태에 놓였던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본격화하고, 참여기업에게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향후 탄소융복합지구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장을 창업·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법인세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 75%뿐 아니라,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5%p 가산 및 기회발전특구 펀드 등의 인센티브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앵커기업의 투자기간 동안 취업유발효과 6,231명과 생산유발효과 8,38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81억원 등의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5개의 협력기업 투자금액(1,272억원)을 감안하면 대규모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시는 지난 4월 공모 선정된 '노후계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사업비 2,843억원) 사업과 더불어 우수 기업을 유치해 탄소융복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융복합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투자 핵심거점 구축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전주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탄소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서 전주시는 이미 탄탄한 인프라와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이 번창하고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완주군의의회  
Wanju County Council

#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을 반대합니다.

완주와 전주의 행정 통합은  
완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 실익이 전혀 없는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을 결사 반대  
합니다.

- 완주군의의회 의원 일동 -

